

한국문화교류 소식

17호 2015년 9월 15일 발행 • 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자녀에게 어떤 '유적'을 남겨 주시겠습니까



홍 사 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모 대기업의 회장 4형제는 충남 서산의 작은 마을에서 빈한하고 남루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단란했던 가정을 팽개친 채, 판 집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 버린 아버지 대신 어려웠던 시절에 홀로 아이들을 보살펴야 했다. 한 때 그 지역의 대단한 문벌을 자랑했던 가문의 많던 전답은 아버지의 파락호 생활로 다 사라져 버렸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은 피폐해졌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있어 '한 세상'인 4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서울로 남의집살이를 떠났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한 살배기 막내까지 외가에 맡기고 절망절망한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뒤로한 채 낯선 서울로 떠났던 어머니의 처절한 심정을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이 장한 어머니는 그 후 몇 년 식모살이로 돈을 모아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에 와서도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먼 새벽길을 걸어 읍내 교회당의 종을 쳤다. 교회에서 조금씩 주는 양식도 도움이 됐지만, 어머니가 남자들도 버거운 종지기를 자원한 이유는 어린 4형제의 건강과 일탈 없이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새벽 종소리는 세상을 깨웠지만, 고단한 어린 4형제의 영혼도 흔들어 깨웠다. 어머니가 치는 종소리를 듣고 4형제는 어떠한 절망과 곤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아 본 적이 없다.

이 형제들은 다 자수성가해서 각자 기업을 일켰다. 돈 때문에 제대로 학업을 못 마친 큰 형은 동생들을 명문대학에 보내며 굴지의 기업을 일궈냈다. 엄마 젖도 못 먹고 자란 막내는 지금 환경 분야에서

사랑하는 이와 얽힌 몽클한 사연이

송송이 땀혀 숨 쉬는 유적지를 간직하고 산다는

작고 사소한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없이 충만하고 행복해진다.

이 '작고 사소한 사실'보다 가슴 저리고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은 독보적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로 자리 잡았다.

얼마 전 막내아들인 S씨가 내게 어머니의 유적을 복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향에 가서 사라져 버린 어머니의 교회종을 찾아 그 자리에 종탑을 복원하고 싶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그 새벽 종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형제들의 오늘도 없었을 거예요.”

경기도 화성시의 바닷가에 외진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앞 선생님 집에서 과외 공부를 했다. 밤늦도록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던 길, 나는 장정들도 무서워 혼자선 넘지 못한다는 느릿재 고개 앞에서 등골이 오싹하는 공포감에 매일 떨었다. 그 때마다 칠혹과 같이 어둔 밤 저편에는 언제나 희미한 등불 하나를 밝히며 다가오던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아”, “엄마”

이따금 들려오는 음산한 부엉이 소리에 나뭇가지조차 숨죽이고 있는 밤, 밤이슬에 바지고쟁이를 다 적시며 혈혈단신 그 무서운 느릿재 고개를 넘어온 용감한 어머니를 통해 나는 버려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따금 매물찬 바람에 등불이 꺼지면 등피 속으로 성냥불을 연신 집어넣던 어머니는 두려움을 씻어 주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고향의 옛집 대문 앞에 와서야 끝나곤 했는데 독서를 많이 하신 어머니의 주제는 역사 속의 위인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이야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박종화의 한국사 등에서 발췌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다 자신의 상상력까지 그럴싸하게 보태주시던 솜씨가 보통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그 긴 이야기의 나래는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해 주

는 원동력이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남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느릿재 고개를 통해 나는 다른 세상으로 나와 여기까지 왔다.

“고향의 느릿재 고개는 우리 모자의 사연이 밀교(密敎)처럼 얽힌 유적지이지요.”

S씨와 나는 서로의 가슴속에 사라지지 않는 <어머니의 유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써서 자녀들에게 남기자고 뜻을 모았다.

물리적인 장소이건 기억속의 장소이건 누구나 어린 시절에 부모와 얽힌 유적을 간직하고 산다. 시골 집이나 도시의 아파트에서 자란 사람도 저마다 부모님과 사연이 얽힌 유적(장소)을 한 두 개쯤 간직한다. 정화수를 떠놓고 집나간 자식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던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어머니의 현대식 장독대를 유적으로 꼽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엔 대자연의 품에서 부모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의 여행지를 잊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내가 아는 어떤 이의 유적은 강원도 어느 산속 아버지와 단 둘이 오붓하게 다녀왔던 캠핑장소라고 한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아버지가 방황했던 사춘기의 아들을 부둥켜안고 울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장소의 기억 앞에서 아들의 생명은 활화산처럼 용솟음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와 얽힌 몽클한 사연이 송송이 땀혀 숨 쉬는 유적지를 간직하고 산다는 작고 사소한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없이 충만하고 행복해진다. 하긴 이 '작고 사소한 사실'보다 가슴 저리고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세상, 국내외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정신적 유적을 남겨 주시겠습니까.





‘2015 태권도의 날’을 맞이하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국제부 사무차장

지난 9월 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5 태권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WTF) 초대 총재, 태권도 단체장 및 세계 태권도 지도자들이 모여 ‘태권도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이 지난 2006년 7월 25일 베트남 호치민시 총회에서 ‘태권도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현재 206개 국가에서 약 8천만 명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는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핵심종목과 2020년 도쿄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에 포함되어 국제 스포츠계에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야구, 소프트볼이 2005년 IOC 총회에서 2012년 올림픽 종목에서 탈락하고, 올림픽과 역사를 같이한 레슬링이 2020년 올림픽 핵심 종목에서 탈락하고 가까스로 2020년과 2024년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는 등 국제 스포츠계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부단한 개혁과 변화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룬 세계태권도연맹은, 경기의 박진감을 높이고 심판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노력뿐 아



태권도의 날 행사




태권도 유공자 표창장 수상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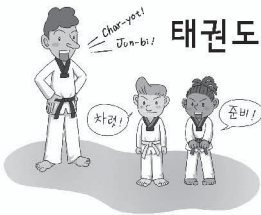
나라, 'WTF 아젠다 2020' 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최고의 국제스포츠연맹(IF)이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 아래 난민촌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태권도박애재단' (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한류의 원조이자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인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이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가끔 물과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처럼,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 태권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2015 태권도의 날' 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많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세계태권도연맹 글로벌스폰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영그룹이 지난 4월, 세계태권도연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미화 1,000만 불을 후원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

지난 달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원 이래 최대 규모 행사로 열린 제2회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현장에서 취재한 국내 일간지 기자들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국익 차원에서 국내 언론의 태권도에 대한 더 많은 보도와 방송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올림픽 정신을 배우려는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 올림피아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아카데미(International Olympic Academy)를 찾는 것처럼, 태권도와 태권도 정신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한국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도록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달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태권도의 날' 행사가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닌 태권도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태권도 기사

세계유소년태권도대회 성황리에 마쳐...

제2회 세계유소년(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8월 23일 개막, 60개국 72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나흘 간 치러졌다. 유소년들은 성인 못지않은 기량으로 대회기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뿐 아니라 선수단과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주 관광단지과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는 문화탐방과 다양한 체험 및 공연을 마련하였다. 체험 및 상설공연장은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외국 선수 및 임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특히 페이스 페인팅과 활 만들기 체험 및 전통의상 입어보기 체험은 인기를 더했다. 태권도 꿈나무들은 경기를 치르며 정정당당함을 배우고, 대회에 참가하는 관람객 등 일반 시민은 문화체험과 여러 볼거리를 즐기는 등 태권도로 하나 되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선수식

출처_ 국제뉴스 2015. 08. 27.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현지인 한국어 · 한국 역사 교사 양성의 필요성



심 용 휴
Eastern Michigan 대학 한국어과 교수

내가 봉사하고 있는 주말한글학교 고등부 한국계 학생들로부터 그들이 다니는 정규 공립학교 세계사 시간에 대한 불평을 가끔 듣는다. 역사 교사가 유럽 역사만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아시아 역사는 일본과 중국 역사만 일부 소개하고 한국역사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학생들은 한글학교에서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배경과 발자취에 흥미를 갖게 되고 유구한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자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한국 역사를 학습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 교사는 한국역사는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한국 역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니 큰 기대를 하며 기다린 마음이 어지간히 실망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나는 미국 공립학교의 세계사 교육 중, 한국

역사 교육의 현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계사 교사를 찾아가 질문도 하고 교과서 또한 살펴보았다. 미 공립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유럽 역사를 시작으로 아시아 역사를 거쳐 남미 역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시아 역사 부분은 중국, 일본 역사가 주를 이루고, 한국 역사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교과서에는 분명히 수록되어 있었다. 삼국시대, 조선시대,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한국의 독립,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쳐 한국 현대사까지, 상세하게 서술되지는 않지만 대략의 줄거리 정도는 알 수 있게 나와 있었다.

나는 세계사 교사에게 찾아가 한국계 학생들이 한국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가르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교사는 교과서를 다 가르치려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은 교사가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고 또 한국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나는 미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이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역사 교사들을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나, 자신의 경비로 한국에 가면서까지 한국역사를 배워야 하는 절실함이 없는 그들에게 그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다 공립학교 역사 교사를 위한 '한국 역사 문화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연간 36시간의 강습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 시간을 강습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세계사 교

사들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한국 역사 세미나' 시간을 정규학교 교사들의 강습 시간으로 인정받을 기관을 알아보았고 당시 본인이 야간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Eastern Michigan 대학에 협조를 구하여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중·고교 역사 교사를 위한 한국역사·문화 세미나'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2010년 11월, Eastern Michigan 대학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세미나를 주최, 인근 지역 공립학교 역사·사회교사를 초청하여 '한국역사·문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초청 강사로는 뉴욕 주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 미국인 한국역사 교수 'George Kallander 박사'를 인터넷으로 찾아 초청하였다. 한국인 강사보다는 미국인 한국 역사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교사들의 이해 및 호응에 더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오전엔 한국역사, 오후엔 한국역사 교육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하여 공립학교 미국인 교사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기회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으로 그 효과를 배가 시키리라는 생각에 특별히 주문한 한국 음식을 통하여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였고, 한국 무용과 사물놀이 팀을 초청 공연하였는데 이 또한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를 마치며, 참석한 교사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에 고마워하였고, 학교 현장에 돌아가 세계사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들을 교육시켜 정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한다면 우리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의 확산에 따라 지금 미국 여러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학급을 개설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찾기가 쉽지



George Kallander 박사 초청 한국역사·문화세미나

않다. 현재 미국에서 정식으로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보니 늘어나는 고등학교 한국어 학급 교사를 보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 대부분이 모두 한국인 영어 교사들인 것처럼 미국 고등학교 한국어 학급 교사들도 미국 현지인 교사들로 채워져야 한다.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미국 10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교사 또는 한국 역사 교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가 근무하는 Eastern Michigan 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이 강한 대학으로 졸업 후 교사가 되기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학교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대학원 과정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과 같이 TKSOL(Teaching Korean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대학원 과정 한국어교사 자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의 재정이 허락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한국어 교사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고 한국어 학급이 개설되는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지인 한국어교사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한국어 세계화는 더욱 빠른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단스라켄아리랑파크 콘텐츠 자문회의

6월 23일(화), 오전 10시, The-K호텔에서 단스라켄 아리랑파크 콘텐츠자문회의를 개최, 행정·역사·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단스라켄아리랑파크 건립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과거 파독근로자라는 '산업'으로 시작된 인연을 이제는 '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자는 공통된 의견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조적 미래를 향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단스라켄 아리랑 공연 성황리에 마쳐...

7월 13일(월), 독일 단스라켄 레딩겐하임 홀에서 단스라켄 아리랑파크 사업을 기념하는 공연이 재독동포 및 독일인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병욱 교수와 어울사랑 전통예술단원, 재독 성악가 이상 등이 우리 음악과 춤, 독일 가곡을 공연하였다. 이번 공연은 ICKC 박의근 재정위원장 및 회원과 어울사랑팀으로 함께 구성된 문화탐방팀이 밀라노엑스포 참가에 이어 함보른 공회당, 단스라켄 시와 로벵 광산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문화 전파와 함께, 과거를 오늘에 되살려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리랑파크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행사이다. 본회는 현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단스라켄 시와 협의 중에 있다.



■ 본회 후원 마리소리 여름 축전 개최 및 '어울당' 현판식

본회가 후원하는 마리소리 여름 축전이 올해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3년 째 개최된 여름 축전은 8월 22일, 23일 양일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멋과 흥의 세계로 초대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리 멋 겨루기 대회'로 참가자들이 더욱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었다.

또한 본회 후원으로 짓기 시작된 '어울당'이 완성되어 현판식 및 집들이 또한 성대하게 치러졌다. 새롭게 지어진 '어울당'은 한국 음악의 산실로서, 우리 음악의 발전과 함께 보다 풍성한 문화 산실이 될 것이다.



■ 2015 세계태권도연맹-경희대 태권도 프로그램 지도자 연수 한국어 강의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경희대학교 국제태권도아카데미(ITA)가 2005년부터 시행해 온 국외 태권도 수련자 대상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들은 태권도 외 한국문화 체험 및 탐방, 그리고 한국어도 배운다. 본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태권도 용어가 모두 한국어이므로 일반 외국인보다 한국어 학습 효율성이 높아 태권도와 한국어의 접목 효과가 많이 기대된다.



한국어 기사

세계 각국에 한국어 가르치는 학교 늘었다... 4년새 2배로

미국, 프랑스와 독일의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2010년에 21개국 540개였으나 지난해에는 26개국 1천 111개 학교로 늘어났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년 새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같은 기간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5만 7천 400여 명에서 9만 3천100여 명으로 증가했다.



데모크래시 프렙차터 고등학교 한국어수업

뉴욕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의 박희동 교육원장은 9월 6일(현지시간) “경제력 신장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사회도 후세들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_ 연합뉴스 2015. 09. 07.

ICKC 9월 문화탐방

◆ 일시_ 9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탐방 장소_ 국립한글박물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T. 02-2124-6200

* 지하철 4호선 & 경의중앙선 '이촌역' 하차, 2번 출구.

용산 가족공원 방면 600미터(국립 중앙박물관 정문에서 계속 직진)

◆ 문의_ 전화 02-2285-1070, 이메일 hangyobon@gmail.com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